

# 80년대 채란양계산업은 도전의 시대였다

임한섭 / 대성양계 대표

89년은 채란양계산업에 있어 많은 변화를 던져주었다고 본다. 우선 80년대를 마감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양적팽창 일변도의 규모경쟁에서 질적인 경영시대로 전환해 가는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88년 특란 연중 평균가격이 54원이었으나 금년 10월말 평균가격은 63원을 숫자상으로 나타냈다.

이보다 앞서 닭사육 농가 또한 81년 12월에 628, 380가구에서 88년 12월은 194, 047가구로 70%가 8년동안에 걸쳐 탈락하고 30%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정부에서 축산장기대책(안)으로 제시됐던 2000년대 양계가구수 예측은 7만여 가구로 보고 있어 64%가 다시 양계업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채란양계인 자의에서 비롯된 것 보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면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그간 서서히

진행되던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전면적으로 맹공세를 받아 일부는 개방이 실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방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고난가는 누구나가 자인하는 사실인데 소비가 대폭 증가한 요인이라기 보다 88년에 저난가에 시달리다 끝내 전업(轉業)의 길을 택하여 채산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한다.

특이한 것은 산란계 병아리 입추는 난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게 상례였는데 금년에는 난가가 생산비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병아리가 입추되지 않는 현상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계속된 호황 다음에 불황이 언제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되는 인력난으로 농장관리가 어려워데 따른 입추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월간양계 11월호에 채란양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지 답변 결과에 나타난대로 약25%가 전업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군을 계란가격에 따라 채산성을 고려하여 도태를 단행함으로써 양계업을 포기하려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입개방시에도 끝까지 경쟁을 벌이기 위한 수단으로 계사시설 자동화를 하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일단 사육농가가 줄었지만 채란양계산업을 계속하겠다는 농장들이 자동화를 통하여 사육규모 확대를 시도하여 전체 사육수수는 농가감소와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양계업은 닭만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화의 가속화로 산업공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닭이 배설하는 계분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낙인이 찍혀 강력한 행정

단속을 또한 받게 되어 계분처리  
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해야하  
는 고충이 본격적으로 나타났  
다.

쉽게 아무나 닭을 키워 계  
란이나 생산하던 시대가 80년대  
를 고비로 막을 내렸다고 본다.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  
니 채란 양계인들은 수익의 대  
부분을 계사자동화 시설에 투자  
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특란이  
일반시장에서 소비자에게 100원  
대에 판매되는 일은 양계인 누  
구나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너무 높  
으면 수입과 민감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폭  
적인 생산비 인하로 생산자가  
우선 살아야 하고 나아가 소비  
자들로 하여금 불만이 없게끔  
해줘야 수입개방을 저지할 수  
있다.

외국의 전례로 보아 축산업은  
환경공해상의 차원에서 계속 제  
약을 강하게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우리도 국민소득이 날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규제하는 면만 임기응변식으로  
처방할 일이 아니라 보다 능동  
적으로 자기의 생업을 위해 모  
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혼자  
의 힘으로 해결치 못하는 것은 단  
체의 힘을 이용하여 채란양계산  
업에 최대한 잇점을 점유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직은 영세한 채란업자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다소 규모를  
크게하여 채란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말그대로 안정성을 보장받  
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  
는가? 더러는 계사를 지은 땅  
값이 엄청나게 상승하여 양계업  
을 그저 명분상 공한지세를 내  
지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  
마나 되겠는가?

전체를 보아야 한다. 금년이  
채란양계업자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많았으며 또한 양계업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케하는 선택  
의 길을 1년동안 주었다고 본다.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여기저  
기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머지않  
아 전국이 1일생활권이 아니라  
몇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뀐다면  
자기지역이라는 우세한 관할지  
역이 없어지게 되리라고 본다.

어쨌든 같은 양계인은 가격과  
판매에서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  
해지고, 타산업과는 공동으로  
대처를 할줄하는 채란양계인이  
되었으면 한다.

소비자도 수준이 상당히 발전  
해 있어 과거와 같은 적당한 비  
위생적인 계란공급은 소비확대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다. 금년에 양계조합에서 계란  
집하장을 설치하여 곧 가동케됨  
에 따라 이미 위생란 처리를 시  
행하는 업체와 함께 계란의 상  
품적 가치 향상에도 기반을 닦  
았음은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채란양계인이 양계산  
업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이 너  
무도 많다. 60년대를 거쳐 70년  
대부터 80년도까지 양적팽창을  
통한 양계인간의 피흘리기 경쟁  
시대를 청산하고 90년대부터는  
질적인 발전을 통하여 건전한  
채란양계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묘안을 발휘해야 하리라고 보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자  
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양계  
산업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  
하는 자야말로 영원한 삶의 터  
전을 양계산업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본격화되는 상업양계시대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때이고 만나면 누가 먼저 계란  
가격을 덤핑을 쳤다는등, 생산  
을 내가 아닌 상대방이 먼저 감  
소해야 한다는 식의 논쟁은 끝  
내고, 내가 만든 상품을 내가 마  
음대로 상품적 가치를 높여 판  
매능력없는 생산과육은 한국의  
채란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기사년 한해를 보내면서 모든  
채란양계인들은 나름대로 양계  
업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렸  
으리라고 믿으며 모든 양계산업  
연관산업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  
는 채란양계 산업을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자기 판단을 해야 하  
리라고 믿는다. **양계**